







(사)한국토종닭협회  
정 학 동 종계·부화분과위원장  
/ 나리농장 대표

1980년 천호부회장 인공수정사 입사  
1990년 육용종계 경영  
2001년 토종종계 경영 부화업 시작  
2009~2010년 (사)한국토종닭협회 감사  
2011년~ (사)한국토종닭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

**당당한 풍채에 시연시원한 말투로 인터뷰를 진행한 정학동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이 처음 토종닭과 인연을 맺은 시기는 2001년이다. 당시 정학동 위원장은 토종종계 경영을 시작하며 부화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보다 앞선 1980년 당시 19살의 나이에 천호부회장에 인공수정사로 입사하며 토종닭 사육에 대한 꿈을 키웠다. 1990년에는 육용종계 경영을 시작했지만 육계산업에서 계열화 사업이 본격화되어 규모가 커지자 소규모로 닭을 키우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종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종종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에는 (사)한국토종닭협회의 감사 직책을 맡았으며 2011년부터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0여년의 세월동안 한결같이 종계·부화업에 종사해 온 정학동 위원장이 언급한 종계·부화업계의 현안은 계열사와의 상생과 수급조절이다. 이와 더불어 자조금의 활성화를 통해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는 정학동 위원장을 만났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회원 간 친목도모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여름 대전 계족산으로 आय회를 다녀왔다



인터뷰

## 계열사와의 상생과 수급조절을 통해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

자조금 활성화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 필요  
계열사와 농가의 상생방안 모색하고 종계 DB구축 사업에 힘쓸 예정

■ 토종닭 자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거출금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이란 닭고기 사육농가의 권익보호, 소비촉진, 농가교육 등 양계생산에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국내 농가들이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수입육의 유입에 대처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금입니다.

하지만 닭고기 자조금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기에는 거출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토종닭 산업과 종계·부화업의 발전을 위한 소비촉진 활동 및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를 인상하고 자조금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활성화의 기본일 것입니다.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힘도 그만큼 커지고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므로 토종닭의 수요도 증가하면 그 소득은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조금 거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자조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토종닭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자조금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편성해서 종계·실용계 등에 대한 수급조절을 시행하며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이 자신과 관련된 업계를 발전에 쓰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한담인 대회, 해외 수출 및 국내 홍보사업을 진행하며 농가들이 자조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자조금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종계업과 부화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로 하여금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분과입니다. 분과위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종계·부화와 연관된 관계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종닭 병아리가 일주일간 생산되는 양과 종계 숫자를 파악하고 시세와의 편차로 인한 어려운 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토론하며 미리

수급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전만 해도 무분별한 입추 경쟁으로 종계·부화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위기극복을 위해 (사)한국토종닭협회와 종계·부화분과위원회가 서로 협력해서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토종닭 시세를 상당히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지금 당장 토종닭 종계·부화 농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요?

현재 토종닭 종계·부화 농가들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계열사와의 상생입니다. 현재 분과위에는 일반 종계·부화장 외에도 종계를 분양받은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농가와 계열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열사의 종계 분양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계열사를 배제한 사업추진은 우리가 있습니다. 이에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통해 농가와 계열사가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며 시시각각 도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로의 상생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입추열기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분과위는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주문 입란할 것을 회원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과 회원사에서 무분별하게 부화를 진행해 결국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분과위는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해 회원사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물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종계·부화분과위원장으로서는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분과위원장의 자리가 때로는 굉장히 무겁고 가시방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조절이나 자조금 사업 등 과업들이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열사와 일반 농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종계·부화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수급 예측 등 종계 DB 사업에도 더욱 더 힘쓸 계획입니다.



H O T  
ISSUE

0 0 2

#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축산단체와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료

양계협회 · 토종닭협회,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펼쳐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건강한 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을 주제로 236개 업체 850개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축산관련 업체 참가를 자랑하며 전국 각지에서 축산농가와 소비자 등이 모여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장 및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은 "이번 박람회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축산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료값 불안정과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육 증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

품안전과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축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끊임없이 경주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개막식에서는 우수 축산인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양계부문에서는 우수 축산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조태운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위원, 우수상(공동주최단체장상)에 신현철 (사)대한양계협회 예산 육계지부장이 수상했다.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와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전시관 내에 축산물 홍보관을 설치하여 LCD 모니터를 통해 TV 속에 방영되었던 닭고기 부위별 요리를 소개하고 가정용 전자제품을 이용한 닭고기 요리도 직접 선보이며 닭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했다. 특별히 마련된 '우리 닭고기 바로 알기' 닥트게임 이벤트를 통해서 '국산 닭고기 먹고 허리살 줄이자!'는 문구가 새겨진 닭모양 줄자와 (사)대한양계협회가 새겨진

스마트폰 터치펜 검용 볼펜을 증정하며 관람객들에게 양양만점의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애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야외에 마련된 토종닭 '한담' 홍보시식관을 통해 토종닭 훈제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여 토종닭의 쫄깃한 식감을 전하고 토종닭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종닭 병아리를 전시하는 코너를 마련해 박람회장을 찾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토종닭의 새 이름 '한담'에 대해 설명하며 토종가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유도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을 진행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병아리를 전시하며 관람객들에게 토종닭의 새 이름 '한담'을 소개했다

## 육계인대토론회, 계열사와의 협상력 강화위해 지역별 농가협의회 구성한다



농가들은 계열화사업법의 문제점 및 농가협의회 구성의 어려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계열화법 성실 이행 및 농가 자율적인 농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책 마련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9월 25일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진행된 학술행사로 '육계인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정부의 육계산업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육계인들이 계열화사업법 및 농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회의실 안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통해 육계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육계농가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토론회에 앞서 (사)대한양계협회 이준

동 회장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열화사업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들이 농가협의회를 회사 위주로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계열화사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난 적자를 농가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가들의 왕겨값, 연료비, 전기세는 계속 오르는데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비는 계속 인하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농가들이 하나로 뭉쳐 현재의 문제점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육계산업 정책'을 설명한 농림축산식품부 서재호 사무관은 양계산업 자체는 계열화 진행율이 95%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축산계열화사업의 기

반은 약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계열사와 농가 간에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계열화사업법은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되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나선다고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가에서 자율적인 농가협의회 구성 등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정부에서도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계열사와 농가 모두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같으나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현안들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서로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이홍재 위원장은 '계열화사업 위기탈출을 위한 육계인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계열화사업의 변천과정 및 현재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홍재 위원장은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된 계열화사업이 1990

년 30%에서 현재 95%로 급성장했지만 계열화가 확대될수록 농가에 대한 불공정 사례는 급증하고 육계사육계약서가 계열사의 농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열사가 병아리, 사료, 도계 및 유통, 수급조절, 사육농가 관리 등 거의 모든 육계사육에 있어서 농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계열화법과 자조금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계열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자구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농가는 계열사에 표준계약서의 이행여부를 요구했다가 입추된 병아리 20만수 중 4만수만 출하할 정도로 병든 병아리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농가들은 자율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조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열사들과 정당하게 협상을 벌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HOT  
ISSUE

0 0 3

## ‘제3회 양계사진 공모전’ 최종심사 통해 당선작 선정돼

당선작들, 양계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전망

지난 10월 4일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제3회 양계사진 공모전’ 최종심사를 진행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하고 닭고기조사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당선작들을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에 앞서 (사)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올해 2월 23일 토종가축법안이 통과되면서 토종닭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한우와 토종닭만 우리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으며, 특히 토종닭은 현재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으로도 종계가 수출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자이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며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토종닭을 계속해서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접수를 거쳐 1차 내부심사에서 51명 176개의 작품 중 78개의 작품이 선발되었으며 10월 4일 최종심사를 통해 29개 작품(입상작 포함)이 최종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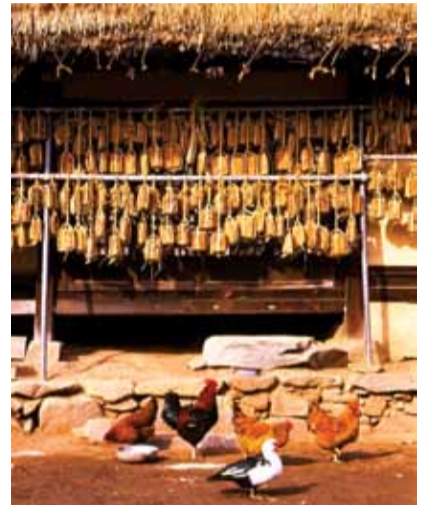
▲ 대상 : 모이사냥 (이수민)



▲ 우수상 : 부화 (김창덕)



▲ 장려상 : 전통흔레 닭날리기 (심민택)  
◀ 장려상 : 나들이 (박종권)  
▶ 장려상 : 토종닭가족 (이만수)



▲ 우수상 : 우리는 가족 (강석화)



## 장기불황으로 어려움 겪는 양계농가 위한 정부 지원책

아직까지 지원책 미비하나, 농가소득 안정화 위한 꼼꼼한 점검필요

사료값 상승, 수입육의 증가, 공급과잉 및 수요정체 등으로 양계농가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양계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살펴보고 농가운영에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7년까지 타 축종을 포함한 닭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방식은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전업농은 닭 3만수 이상, 준전업농은 전업농의 1/3수준 이상, 기업농은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사시설, 축산시설, 출하분류기, 약취절감기,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이며, 지원한도는 육계 축사 및 축산시설의 경우 준전업농~전업농은 8억 5천만원(축사면적 460~4,140㎡), 기업농은 30억원(축사면적 4,140㎡ 이상)이다.

둘째,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개별시설)나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액비저장조시설)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조건은 개별시설이 국비보조(20%), 지방비(20%), 국비용자(60%)이며, 액비저장조시설이 국비보조(20%), 지방비(20%), 자부담(30%)로 지원된다. 단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양계업계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선라이트)를 허용하며 계

사 내 비닐을 깔고 재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분한 후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 등을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에는 처리시설을 면제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사업은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축산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악성가축질병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들은 교육비를 해당교육시간에 맞게 납부하여야 하며(교육시간 당 약 2,500원, 신규농가는 3,750원),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무교육시간은 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3년 미만 12시간, 신규 24시간이다.

넷째,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책이다. 부담금리는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섯째, 고효율 LED조명 지원사업은 백열전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설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감전력 1KW 이상 양계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제품으로 선정된 모델이며, 지원품목 적용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지원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이다.

국민의 식량자원을 책임지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까지는 미비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농가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꼼꼼히 검토하여 매년 초 정부의 지원금 신청시기에 각 농가에 적절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농가경영 안정화에 도움받길 바란다.

##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AI 특별 방역기간

검역본부, 상황실 본격 가동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금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과 AI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

실’을 운영한다. 검역본부 관계관은 AI의 경우, 유입 원인인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 구제역은 ‘10/11년 발생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는 재발 위험이 높은 시기(철새

도래시기 10월~다음해 4월)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의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은 종합상황반, 질병방역반 등 5개 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상황 발생 시 7개 반으로 확대된다. 검역본부는 상

황실 가동을 통해 24시간 의심축 신고와 상황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발생정보 수집·분석, 야생철새 등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중앙기동점검반(8반 16명)을 통한 농가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의심가축 신고 : 1588-4060, 9060〉



# 지부탐방 | 우수한 품질의 병아리 생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당진종계지부

## 양계산업의 일원으로서 닭고기자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신현민 지부장(왼쪽)과 박정환 총무(오른쪽)

지난 9월 24일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참석한 당진종계지부 신현민 지부장을 만났다. 전국적으로 종계농가는 육계농가에 비해 농가수가 적은 탓에 본회에서도 종계지부는 6개 지부에 불과하다. 이중 4개 지부는 충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당진종계지부회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단출하지만 내실 있는 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 당진종계지부는 당진지역 농가들로 구성된 서종영농조합에서 시작되었으며, 더욱 체계를 갖추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당진종계지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진지역에는 채란지부가 따로 없는 탓에 소수의 채란농가도 한식구로 활동하고 있다.

신현민 지부장은 매월 본회 종계부회분과위원회와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을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 매월 개최되는 당진종계지부 월례회에도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아 회원간의 결속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당진종계농가의 생산성적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자부한다. 신현민 지부장이 회원들에게 귀가 닳도록 강조하는 것이 농가의 질병방역이라고 한다. 당진지역 종계농가가 밀집된 탓에 한 농가라도 질병이 발생하면 주변농가까지 피해가 확산됨을 철저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덕분인지 당진종계농가는 질병발생이 적고 사육성적은 우수한 편으

로, 종란납품단가를 계약하여 거래하고 있지만 생산성 피해가 생기지 않는 탓에 경영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신현민 지부장은 무엇보다 “당진지역 종계농가들은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성적과 병아리 품질을 위해 계군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전한다.

종계업체에서도 닭고기자조금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도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조금납부가 농가개인의 납부의지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종계농가의 자조금거출이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하지만 신현민 지부장은 자조금을 통해 종

계인들도 양계산업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회원들도 뜻을 함께하면서 거의 모든 회원이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신현민 지부장은 아직까지는 자조금을 통한 종계분야의 사업의 비중이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종계농가에 혜택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양계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조금사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당진종계지부 회원들



### 육계질병가이드 / 콕시듐의 예방약 및 치료약

Q. 콕시듐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콕시듐을 예방하는 약과 치료하는 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방약으로는 주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제가 있는데 ① 합성 항콕시듐제(Chemical) 종류와 ② 아이노포어(polyether ionophore anticoccidial) 항콕시듐입니다. 백신도 물론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관한 약제는 톨트라주릴이라는 품목의 항원충약이 있습니다. 합성 항콕시듐제의 경우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오직 한 번만 사용하고 깔짚을 교체하기 전에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내성이 빨리 발생하여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노포어 항콕시듐제는 내성발달이 느리고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노포어 계열 약에는 1가(모넨신, 살리노마이신, 나라신), 1가 글리코사이드(마두라마이신), 2가(라사로시드) 라는 세가지 계열이 있는데 같은 계열 간에는 교차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계열약으로 번갈아 사용해야 합니다.

육계에 있어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다른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셔틀프로그램(shuttle program)이라고 합니다. 1년에 6번 닭을 입추한다면 처음 3회는 A약제, 다음 3회는 B약제 이렇게 파스별로 약제선택을 다르게 하는 프로그램은 로테이션 프로그램(rotation program)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백신의 경우는 약독화된 콕시듐균주를 닭에게 먹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백신을 사용하면 필드에 오염된 원충을 백신에서 증식된 백신균주로 바꾸어 오염시키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한 농장에서는 기존에 내성을 일으켰던 약들이 다시 잘 듣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콕시듐 약제는 이러한 약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디자인 받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 농협목우촌, 차별화된 닭가슴살캔 판매 중



농협목우촌(대표이사 성병덕)은 닭가슴살을 활용해 3종류의 캔 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닭가슴살양념치킨 150g’은 닭가슴살에 매콤한 양념을 곁들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닭가슴살에 적절히 배합된 양념 덕분에 바쁜 수험생이 밥공기 하나와 함께 밥반찬으로 먹기에 적합하며,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일과를 마치고 가볍게 술안주로 먹기 좋다. 깊게 밴 양념에 밥을 얹으면 맛깔스러운 덮밥으로도 적당하며 다양한 야채와 함께 씹을 싸 먹기에도 탁월한 식감을 자랑한다.

‘빵에 발라 먹는 닭가슴살 150g’은 서구식 입맛에 길들여진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는 육가공품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을 샌드위치나 샐러드, 비스킷 등에 곁들여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아이들에게 고품질 단백질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품이라 할 만하다. 각테일파티나 양주안주에도 많이 쓰이는 카나페에 살짝 얹어 깔끔한 술안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닭가슴살프리미엄 150g’은 ‘닭가슴살양념치킨’이나 ‘빵에 발라 먹는 닭가슴살’과는 달리 닭가슴살 자체만 83.51%를 포함하고 있어 찌개, 샐러드, 볶음밥, 각종요리 등 다양한 메뉴의 요리에 식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닭가슴살 캔 3종은 최근 다이어트와 웰빙 시대에 인기가 높은 저지방·고단백질의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인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며 닭가슴살 캔 3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호응도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2013년 올바른 닭고기 정보제공 사업

#### 1. 사업개요

##### ■ 목적

전국 지자체행사를 통해 닭고기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시식행사로 국산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민에게 양계농가에 대한 위상을 높임

##### ■ 방법

닭고기 무료시식을 통해 지역주민과 양계농가간의 상생유도

#### 2. 지원사항 :

항목	지원금	내용	비고
시식재료 구입비	2,500,000원	- 생닭 및 닭고기 가공품 구입비 - 부가세 포함금액 - 지원금 이내만 지원	
합계	2,500,000		

#### 3. 준비사항 : (필수)

- 홍보 일정이 있는 협조 요청 공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 닭고기자조금사업자등록증으로 모든 계산서 발행(개인카드 사용불가)
- 행사사진에 일시, 장소, 지부명 및 "주최: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표기"
- 행사 완료 후 정산보고 시 통장사본 송부

#### 4. 주의사항

- ① 행사 지원비 협조요청 공문을 우선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000 대의원(지부장)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 ② 지원금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결과보고 정산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④ 제공된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 대의원님(지부장) 직인 및 행사사진 필히 첨부

#### 5. 문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신찬규 사원  
전화 : 02-585-9974, FAX : 02-585-3548, E-mail : vanhat@naver.com

### (사)대한양계협회



#### 2013년 닭 질병방역 순회세미나 개최

본회에서는 매년 양계농가들의 질병방역 의식고취와 대응방안을 습득하고 이를 통한 양계산물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닭 질병방역 순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올해 10월 중 전국단위로 3회에 걸쳐 "2013년 닭 질병방역 순회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AI 및 가축매몰지 등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최근 다발하는 신종

질병 등 전염성 양계질병 발생의 구체적 실사례 발표와 대처방안 모색을 통해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가축방역 체계 구축 개편 등 정부대책에 대한 대농가교육이 병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참석대상은 양계 사육농가 및 관련종사자이며, 교육 장소는 경기/강원, 충청, 영남지역으로 나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 세미나 일정 및 장소

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2013.10.15(화)	양평 농업기술센터	250명	경기,강원지역 교육
2013.10.16(수)	충남 홍농연웨딩홀	250명	충청지역 교육
2013.10.23(수)	경북 농업인회관	300명	영남지역 교육

#### 육계부분 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 충남도청 분쟁조정건 협의 등 본격활동

본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된 계열화사업협의회는 향후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운영계획 및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충남도청 분쟁조정건 협의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전국단위 축산단체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열농가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동안 관심을 끌고 있던 (주)성화식품 계약서 변경(위탁사육수수료 인하건)에 대한 중재요청이 충남지역 농가들로부터 도청에 접수된 이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충남도에서는 본회에 모

든 사항을 이관한 상태이다. 충남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농가들로부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중재요청을 접수받은 후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결론도출에 실패하자 협회 내에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인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육계부분 위원 명단은 총 12명으로 정부추천(허덕 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박인희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단장, 장경만 한경대학교 교수, 류경선 전북대학교 교수), 농가대표(이홍재 호산농장 대표, 오세진 대흥농장 대표, 김명기 진미농장 대표, 김의겸 산내들축산 대표), 계열화사업자 대표(박종걸 체리부로 부회장, 신계돈 마니커 대표, 성병덕 목우촌 대표, 황금석 동우 대표)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 9월 27(금) 대구 EXCO, 종계부화분과인 대토론회 개최



종계부화분과위원회가 한달인 대회 사업계획과 병아리 유통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최대 축산박람회인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기간 중인 9월 27일(금) 대구 EXCO에서 전국종계부화인 대토론회가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가장 큰 화두로 육계산업의 계열화에 따른 종계·부화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거론되었다. 육계산업의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열사가 종계·부화산업에 직접 뛰어들어 생산하다보니 병아리 거래방식이 계열사 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열사들간의 무자비한 몸집불리기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일반농가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부화장의 가동율은 점차 떨어지고, 종계농가 또한 계열사에 종란을 납품하는 종속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계열사는 가공과 유통·소비단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집중투자하면서 일반농가들의 사육주권을 빼앗고 있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이런 사육환경 변화에 따른 종계·부화인들의 사육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수평계열화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하며, 종란납품가격 현실화와 종계쿼터제 도입 등 종계·부화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권



재한 축산정책국장이 참석하여 종계·부화인들의 고충을 듣고 하루 빨리 협동조합형 수평계열화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부 계열화업체와 중

계·부화인들간의 불공정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 (사)한국계육협회



####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2013 전국 육계농업인 상생 전진대회' 일정이 오는 11월 5일(화)로 확정됐다

#### '2013 전국 육계농업인 상생 전진대회' 일정 확정

본회는 지난 10월 1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 전국 육계농업인 상생 전진대회'를 오는 11월 5일(화) 개최키로 확정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법협의회 구성, 닭고기 수급·유통·검사제도

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외 시찰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이 회의에 참석,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대한 농가협의회 구성 시 계열사와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3 닭고기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운용 평가위원회 개최



'2013년도 닭고기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운용 대행사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본회는 지난 10월 1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닭고기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운용 대행사 선정'

과 관련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 결과 (주)손바닥미디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2013년 도축장 위생관리실태 및 HACCP 운용수준 평가 계획 통보

#### 회원사에 도계장 위생 철저 당부

도축장 위생관리수준 향상 및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축장 위생관리실태 점검 및 HACCP 운용수준 평가'가 추진된다.

이에 본회는 각 회원사에 도축장 위생관리실태 점검 및 HACCP 운용수준 평가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 베트남 소비홍보 행사



토종닭협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토종닭을 홍보하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랜드플라자에서 이틀간(26~27일)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아세안 바이어 80여명이 참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을 만큼 한국 농식품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이틀 동안(28~29일)의 통일공원 시식

본 협회와 싱그린푸드시스템은 베트남에서 토종닭홍보 행사를 가졌다

본 협회는 aT 주관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9월 26~29일까지 한국 식품관촉전 '2013 코리안 푸드 페어 in 하노이(2013 Korean Food Fair in Hanoi)'에 참가하여 한국 드라마 등 오락적인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현지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행사를 펼쳤다.

바이어를 대상으로 베트남 하노이 그

홍보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행사와 더불어 한국 농식품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우리 토종닭으로 만든 제품은 가장 인기가 높아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홍보하여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싱그린푸드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토종닭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토종닭의 우수성을 높였다.

#### 제1회 축산인 한마음 대회



토종닭협회 전북지회 정읍지부의 전(全) 회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토종닭 홍보에 나섰다

적극적으로 토종닭홍보에 나섰다. 토종닭치킨, 토종닭훈제, 토종닭웃닭 시식회를 진행하여 행사 참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북양계산학연에서 토종닭훈제를 만들어 선보여 모든 참석자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지난 10월 2일 제1회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유성업 의원, 정읍 시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각 품목별 축산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소비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토종닭협회에서는 전북지회 정읍지부의 전(全) 회원이 참여하여

행사에 참여한 조명옥 지회장은 "토종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토종닭의 소비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정읍지부 주상근 지부장도 "정읍회원 모두의 협조에 감사하며 우리 토종닭을 잘 사육하여 토종닭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부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 제25회 대전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 '한닭' 홍보관 마련

(사)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대전광역시4-H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5회 대전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틀간 서구 탄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대전농업인, 소비자 및 관계관 등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과 나눔의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본 협회 대전 충남 지회 대전지부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해 참관객에게 토종닭 삼계탕 홍보 시식행사를 하여 한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토종닭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도시 소비자와 함께 하며 토종닭 '한닭'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 닭다리조림과 단호박구이

단호박은 미네랄과 비타민B,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목과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어 기침을 가라앉히므로, 단백질과 지방이 조화를 이룬 닭다리살과 함께 조리한다면 쌀쌀한 가을 날씨에 최고의 영양식이 될 것이다.

**재료** 닭다리 10개(밀간 - 청주 1큰 술, 소금 흰후추), 마늘 1통, 단호박 1/4개, 식용유  
**소스** 다진마늘 1큰 술, 굴소스 1큰 술, 핫소스 2큰 술, 칠리소스 2큰 술, 사과즙 3큰 술, 물엿 3큰 술, 소금

Cooking

1. 닭다리는 깨끗이 씻어 뼈가 붙어있게 살을 편 다음 청주, 소금, 흰 후추를 뿌려 재운다.
2. 마늘은 편으로 썰고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여 1cm 두께로 썬다.
3. 식용유 두른 팬에 마늘편을 볶아 한쪽 옆으로 모으고 닭다리살과 단호박을 구워준다.
4. 팬에 소스재료를 끓이면서 ③의 닭다리를 넣어 윤기나게 조리한다.
5. 접시에 조리된 닭다리와 단호박, 마늘편을 색 맞추어 담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퀴즈 낱말맞추기

1		10		13	
		11	12		
2	3				9
	4			8	
5			7		
	6				

◇ 가로풀이 ✨ ✨

- ① 집의 인채와 떨어져 있고 손님을 접대하는 방
- ② 가난함과 부유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④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함
- ⑤ 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 같은 것으로 만든 침구의 하나
- ⑥ 먹는 물의 원천, 또는 그런 물이 있는 곳
- ⑦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 ⑧ 점점 속도를 더함, 또는 그 속도
- ⑩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해냄, 또는 그 생각
- ⑫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 세로풀이

- ① 사료를 담는 저장용 통
- ③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 ⑦ 바라고 원함, 또는 바라고 원하는 일
- ⑧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
- ⑨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 ⑩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
- ⑫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 ⑬ 사람 얼굴의 생김새, 또는 그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

57호 정답

		ㄹ	ㅅ	ㅈ	
	곰	▽		뿔	10
ㄴ	ㄷ		ㄷ	ㅂ	
ㄷ		ㄹ		ㅂ	ㅂ
	우	뿔	ㄷ		곰
ㄷ	ㄹ		우	우	ㅂ



## 양계 비법전수 환절기 사육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교차가 큰 봄, 가을이나 환절기에는 계사의 내·외부 온도가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온도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관리의 실패로 소화불량, 설사 등에 의하여 약추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압사로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예가 흔합니다. 어린 병아리는 체온조절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고온이나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약합니다. 특히 육추 초기에 저온에서 사육될 경우 출하

시 생산성과 폐사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일별 온도차이가 있어도 계사내부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심한 일교차와 번덕스런 날씨에는 일정한 온·습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나, 타이머나 센서를 이용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량을 조정하고 계사 내부온도를 체크합니다. 열을 배출해주고 유해가스를 낮추어 주기 위하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환기량을 늘려주도록 합니다. 밤에는 외부기온이 차가워 찬바람이 닭에게 직접 접촉하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창이나 커튼을 닫아 찬 공기를 차단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천정부위를 거쳐서 더운 공기와 섞여서 닭의 사육공간으로 내려오도록 입기구를 배치하여 환기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